속리 - 천년고찰 법주사 이야기(거점식)

1. 기획목적

○ 법주사에 분포한 문화자원과 설화를 법주사 종합안내판을 보고 설명하여 법주사 탐방 전 탐방객들에게 법주사에 대하여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2.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방법

○ 대상자 : 초등학생과 가족단위, 성인(20명)
○ 대상지 : 법주사
○ 준비물 : 리플렛, 안내서
○ 계절 : 연중
○ 소요시간 : 1시간
○ 해설위치 : 법주사 안내도 앞

3 프로그램 시나리오

(1) 만남과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따뜻한 봄날에) 속리산국립공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속리산국립공원의 자연과 문화해설을 담당하고 있는 자연환경안내원 ○○○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서 자연경관이 가장 아름답고, 자연생태계가 살아있는 곳, 그리고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곳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전국의 국립공원마다 어김없이 명찰들이 자리 잡고 있는 데, 특히 속리산국립공원에 속해있는 법주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문화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좀 더 유익한 탐방을 돕기 위해 천년의 향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법주사의 연혁과 창건설화, 곳곳에 숨겨진 역대 왕들에 관한 이야기, 법주사의 핵심적 신앙과 사찰의 배치구조, 그리고 문화재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 법주사의 연혁과 역대 왕들에 얽힌 이야기

법주사는 신라 24대 진흥왕(553)때 의신조사가 처음 창건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 다시 짓고 고쳤는데 성덕왕과 혜공왕 때 크게 다시 지어 큰 절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임진왜란(1592)때 법주사는 승병의 중심지였으며, 그로인해 정유재란(1597)때 왜군에 의해 모조리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전쟁 후 사

명대사가 대대적인 공사를 시작해 인조 4년(1626)에 다시 대찰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오늘의 법주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절은 산세를 감안하여 좋은 곳에 짓기 마련인데, 법주사는 속리산의 크고 작은 연봉들을 대군처럼 호위시키고, 용력이 뛰어난 장수로 하여금 옆을 지키게 하는 형세로 특히 길지에 속한다고들 합니다. 그런 까닭인지 역대의 왕들은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법주사를 찾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고려 공민왕은 홍건적의 침입을 피해 안동으로 피난 갔다가 환궁하는 길에 들러 국운이 흥하기를 기원했고, 당시 통도사로 사신을 보내 사리를 가져오도록 했으며, 지금의 능인전 뒤에는 그를 뒷받침하는 세존사리탑이 있습니다. 또한, 조선 태조 이성계는 즉위하기 전, 상환암에서 백일기도를 올리기도 했으며, 조선 3대 태종은 왕자의 난을 거쳐 왕위에 즉위하였는데, 즉위 후 오래도록 형제들을 죽인 것에 대한 자책으로 시달리다 태종 16년에 심신을 다스리기 위해 몸소 속리산에 들러 오래도록 머물렀으며, 속리산에서 마침내 마음의 안정을 찾자, 돌아가는 길에 당시 보령이라는 지명을 보은이라 고치고 현감까지 두도록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속리산과 가장 인연이 깊다고 할 수 있는 조선 7대 임금인 세조 또한, 병을 치유하기 위해 복천암에서 머물며 치료했다고 합니다.

(3) 창건설화

모든 사찰에 창건설화가 있듯, 동국여지승람 및 조선불교통사 등에는 법주사에 얽힌 창건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의신이라는 스님이 불도를 깨우치고자 멀리 인도(천축국)에 가서 수도를 한 후 흰 나귀에 불경을 싣고 귀국하였답니다. 의신스님은 신라 땅에서 절을 지을 만한 터를 찾아다니던 중, 스님이 타고 다니던 흰 나귀가 현재의 법주사 터에 이르러 발걸음을 멈추고 더 이상 나아가지를 않고 제 자리를 맴맴 돌며 울부짖더라는 것입니다. 의신스님은 나귀의 행동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나귀에서 내려 산세를 둘러보니 수려한 산세가 마치 절을 지을 만한 곳이라 판단되어 절을 짓게 되었고, 나귀의 등에 싣고 다니던 경전, 즉 '부처님의 법이 이곳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절 이름을 법주사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주사의 서편 수정봉아래 마애여래의상(보물 제216호)이 새겨진 추래암을 자세히 살펴보면 벽면 왼편 아래쪽에 굵고 투박한 음각으로 짐을 실은 말과 스님 그리고 꿇어앉은 소 등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법주사 창건설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 법주사의 핵심적인 신앙체계

비로자나불을 주존불로 하는 화엄종과 미륵대불을 주존불로 하는 법상종이 복합된 이중적 신앙체계를 가진 법주사는, 대웅보전과 미륵불(용화보전)이라는 2개의 건축 중심을 설정하였고 각각의 중심은 강렬한 중심축을 갖고 두 시설은 서로 구성축을 직각으로 교차하면서 위치해 있습니다. 그 교차점에 5층 목탑 건물인 팔상전을 세워 두 축을 결합시켰으며 또한 2개의 구성축은 각기 수정봉과 관음봉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옛날 법주사 그림을 살펴보면 팔상전과 용화보전을 잇는 축선상에 석연지-석등-희견보살상이 일렬로 놓인 모습이 뚜렷한데 1990년에 청동대불이 옛 용화보전 자리의 남쪽으로 옮겨짐에 이어 석연지와 희견보살상, 석등의 위치마저 옮겨져 현재 법주사의 사찰배치구조로 보았을 때 기존의 미륵신앙 축은 완전히 흐트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사찰내의 문화자원

법주사는 신라시대 창건된 이래로 지금까지 기나긴 천 년 세월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절 안팎의 수많은 유물과 유적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법주사 경내에는 쌍사자석등(국보 제5호), 팔상전(국보 제55호), 석연지(국보 제64호)등 국보 3점과 사천왕석등(보물 제15호), 마애여래의상(보물 제216호), 신법천문도병풍(보물 제848호)등 보물이 10점, 충청북도지정문화재가 상당수 있습니다.

(6) 탐방코스

자~ 이제부터 법주사 탐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될 텐데요.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안내도 앞을 출발해 수정교를 건너, 두 번째 문인 금강문을 들어서면 좌,우측으로 철당간과 철확(보물 제1413호)이 보일 겁니다. 다음으로 국내 천왕문 중 최대 규모의 사천왕문이 있습니다. 법주사의 사천왕문은 임진왜란 후 벽암대사가 불교의 힘으로 난을 물리치고자 조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천왕문을 지나자마자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있는 건축물은 국내 유일의 5층 목탑건물인 팔상전(국보 제55호) 입니다. 팔상전에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팔상도가 봉안되어 있는 데, 내부를 돌며 감상할 수 있습니다. 팔상전을 나서면 눈앞엔 불전사물인 범종과 목어, 운판, 법고가 있는 범종각이 보일 겁니다. 범종각을 지나 발길이 닿는 곳엔 두 마리의 사자가 석등을 받들고 있는 쌍사자석등(국보 제5호)이 있습니다. 쌍사자석등을 지나면 사천왕석등(보물 제15호)이 보이고, 높이 약 5.5m의 국내최대 좌불인 소조비로자나삼존불(보물 제1360호)이 모셔진 웅장한 대웅보전(보물 제915호)건물이 눈앞에 들어옵니다. 법주사 대웅보전은 1층과 2층이 탁 트인 통층 구조로 이런 건물로는 무량사 극락전, 마곡사 대웅전,

화엄사 각황전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화려한 보관을 쓴 목조관음보살(보물 제1361호)이 모셔진 원통보전(보물 제916호)과 아미타부처님에게 공양하기 위해 향로를 머리에 이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의 희견보살상(보물 제1417호), 33m의 금동미륵대불과 그 아래의 용화보전, 미륵신앙의 상징물인 석연지(국보 제64호), 철당간, 마애여래의상(보물 제216호)순으로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7) 마무리

짧은 시간 함께 한 속리산법주사탐방에 관련한 저의 해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법주사의 건축물과 석물에 담겨있는 불교의 상징적인 가르침(진리)을 통해 불교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더불어 저희 속리산국립공원이 간직하고 있는 오랜 역사, 문화자원의 소중한 가치와 우리 옛 조상들의 과학적이고도 슬기로운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유익하고 즐거운 탐방이 되길 바라며 해설프로그램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